

記 憶 에 남 는 印 度 의 이 모 저 모

연세의대 간호학과 명 규 임

무더운 날씨와 싸울 준비를 단단히 하고 1965년 7月初 몹시도 가물던 날씨가 급작스레 暴雨로 變하던 날 午後 西北航空機로 東京까지 가서, 이튿날 다시 SAS를 갈아타고 “칼카타”를 向하여 出發했다.

韓國時間과 約 세時間半 差가 있는 그곳은 解放 이듬해 上海에서 “엘레스티”를 타고 釜山港으로 돌아와서 1962년 7월에 “가족계획 실지 지도원” 훈련次 日本에 갔던 경험밖에 없는 나에겐 약간의 초조와 긴장을 숨길수 없었다.

이윽고 비행은 계속되어 Manila, Bangkok, Rangoon에 각각 한시간씩 머물고, 해가 떨어진 늦은 저녁 目的地에 도착했다.

훗끈한 空氣가 얼굴을 뒤 덮는다. 가슴이 답답해 왔다. 말 그대로 熱帶地方이다. 이 때 부터 나는 더위와 싸워야 했고, 배움에 열중 해야 했고,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女性으로써 최대한의 活動을 해야했다.

숨을 깊이 드려마시고 마음을 다

시 한번 가다들었다. 가족만 남은 “소(물소)”가 어슬렁거리는 거리를 따라 칼카타 市內에 이르러 여장을 풀었다.

이번 course는 UNICEF/W.H.O. 알선으로 마련되어 1961년에 이표희, 공창옥, 임재탁, 1963년에 주혜숙 (그는 지금 印度人 寶石商과 결혼하여 어린딸과 함께 세식구 단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 1964년에 장정미 제 선생들이 3次에 걸쳐 다녀왔고 우리가 (本人과 신덕화 선생) 4次生이었다.

“칼카타”를 누비는 中心街에 자리잡은 All India institute of hygiene and Public health는 1932년 美國의 록펠러 財團에 依하여 설립된 후 오늘날 까지 印度 뿐만아니라 各國에서 모여든 保健分野의 우수한人材들을 많이 길러냈다 하며, 1953년에 UNICEF 援助에 依하여 M.C.H. (maternal child health) section이 더욱 活潑해 졌을 뿐만아니라 同時에 C.P.H.N. (certificate of public

Health Nursing) Course 가 생기게 되었다 한다.

全校生 280 名. 中 C.P.H.N. D. P.H. (Diploma of Public Health) M.E.P.H. (Master of Engineering Public Health), D.M.C.W. (diploma of Maternal Child Welfare), 그리고 Dip Diet (Diploma of Dietician) 등 각각의 course 는 7月初가 되던 每年 새로운 학생들로 봄비게 된다.

우리 Course 는 한국인 들, 아프리카의 나이제리아 여섯, 쏘마리아 하나, 스위지랜드 둘, 중동의 올단 하나, 印度洋의 모리쇼스 하나, 씨쇼스 하나, 동남아의 버마 하나, 유럽의 英國人 하나, 그밖의 印度 各 “州”에서 모인 대표로 모두 38 名이었다.

언뜻 생각에 “印度에서 배울것이 무엇이냐?”하는 것이 一般의 의견이고 또한 自身들도 半信半疑의 태도였다.

人口 4억 6천을 돌파하는 광막한 이 나라는 동쪽끝에서 서쪽끝까지의 비행 時間이 두 時間半! 서울, 東京間의 보통 비행시간이고, 남쪽은 옛날에 퇴마리아를 넘어온 移住民에게 쫓겨내려가 사는 原州民으로써, 살색이 검고 머리가 곱슬거리며 體軀가 우리들과 흡사한데 비하여, 북쪽 사람은 마치 구라과 사람들파도 같이 살색이 희고 머리도 곱다.

16世紀에 英國의 植民地가 되기

前까지 그들이 가졌던 호화 찬란한 예술과 文化는 지금까지도 방방곡곡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다.

政府는 250 個種의 方言中 解放後 16 個州의 地方語를 채택하고 적어도 國家公文을 16 個 方語와 英文번역을 하여 국민에게 시달한다 하며 민부의 差가 마치 “일금”과 “거지”에 比할 수 있고 知識層과 文盲人 (total 70%) 과의 거리는 하늘과 땅이라 表言할 수 있겠다.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을 수없이 하느님께 감사한다.

푸른채소가 食卓위에 오르던 “오늘은 누구의 生日이냐?”고 농담이 오고 간다. 하기는 年中 겨울철 한 제철을 빼놓고는 더위와 높은 습도에 채소가 자랄 수 없다 (지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 게다가 게으르기 까지하니... 오랫동안 보고있지 못할 만큼 느려 터지고 만사태평의 생활습성! 그들 民族의 배후엔 쓰라림의 상처가 한두가지 아니다. 무지와 가난과 질병이 한데 얽혀 있으며, 反面 그것을 극복한 국민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학자들도 무척 많이 있었다.

가끔 “아프리카” 학생들이 “인도” 학생에게 너희들 국민의 4階級制度는 틀렸다”고 지꾸진 도전을 해 온다. 그태도 배구가 없다. 그것이 곧 그들의 無抵抗 反抗의 根性인듯 하다. 社會는 대체로 크게 나누어 聖者, 軍人, 商人, 고승인 그리고 아

무 community 에도 속하지 못한 비참한 人生도 있다. 勿論 都市에서는 그 制度가 차츰 무너져 가고 있으나 대체로 조상으로부터 자손 만대까지 그 제급의 베투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그들은 그 자리에서 만족한 듯한 느낌도 옛 보였다.

英國이 印度를 執權하고 있을 때, 全印度人을 쪼갤어 Cast Hindu 와 Schedule Hindu 로 나누워 그 中 Cast Hindu 만이 정부요인이 되어 國政에 참여할 수 있게했고, Schedule Hindu 는 비참하게도 始終 노예 취급을 받아 왔다하며 解放 20 餘年이 된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여과를 남기게 된 것이라고 어느 印度人은 告白했다. 웅장한 대리석 고층건물에 병방장치를 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 人生을 즐기는 자와, 허기와 그리고 더위에 지쳐 그늘을 찾아헤매는 수많은 무리와는 너무나도 對照的인 눈물겨운 사실이었다.

出生당시 體重이 2,000 gm 前後라도 正常이라고 취급하는 그 땅엔 어찌면 못병이 그리도 많을까? 人口 1,000 에 Leprosy case 다섯골, 全世界 1,000 萬 癩患者의 近 3 分之 1 을 차지하고 있다. 그뿐일까?, Cholera Smallpox, Malaria, Trachoma, V.D. (現在 W.H.O. 에 의해 control 되고 있다) 가지각색의 insect bite 전염병이 단연되고 있다. 外國人들은 칼캣타에 가면 으헤히 할 번은 혼이난다. 運이 좋으면 무사하

고 그렇지 않고는 皮膚病이 끄치질 않는다. 책에서만 볼수있는 여려가 Vitamin 결핍증은 농촌에 가면 언게든지 볼수있고 特히 嬰幼兒期에 榮養失調로 오는 Kwashiorkor 는 六, 二五 당시 우리배 고아들에게 나타났던것과는 비유가 안된다. 또한 食生活의 습관으로 썩는 “판(Pan~ 넓적한 잎이 마치 사철나무 잎과 흡사한데 그 잎속에 여려가지 향료를 섞어 묶은 초위 한구말로 분석된 “印度産 종합비타민”이다)으로 말미안아 oral cancer 가 수도록 하다.

到着한지 얼마 안되어 학교에서 돌아오는길, 路上에서 문득 별정한 사람이 입에서 “피(血)”를 내뿜는 것을 보았다. 감작놀라 몇발자욱 닥아서니 다 썩어 앙상한 “앞니”를 보이며 싱그레하고 웃는 것이 아닌가. 分明 “작혈” 같았다. 그것이 곧 “판”을 씹고난뒤 배알는 찌꺼기였다. 인이 백인 사람은 하루종일 입에 “판”을 물고 있다.

主食은 알랑미, 부식은 여려가지 채소를 잘게 썰어서 기름에 볶아낸 뒤, “카레 (curry)를 지독히 맵게 섞어, 마실수 있도록 국물을 잡고, 쟁반에다 “밥”과 “카레”를 반드시 오른쪽 손으로 멋있게 반죽을 해서 비빈후 엄지, 중지, 장지, 세손가락으로 입언저리에 밥알하나 들히지 않고 실수없이 쪽쪽 입으로 나른다. 勿論 배운사람들은 삼지창과 숟가락을 쓴다. 그러나 간혹 배운 사람도 다

衆 앞에서 버젓이 손가락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平常時에 덩망이 높던 心理學교수였기에 더욱 失望했는지 모른다. (食事前後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는다.) 그러나 그들의 民族愛! 庶民과 같은 자리에 서서 民族을 구원 하겠다는 印度의 아버지 故“깐디”翁의 思想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각있는 사람은 더욱 그런 일을 즐겨 앞장서려 한다.

絶對로 사치스럽지 않다. 없기에 하는 수도 없겠으나 나는 그들의 어울리는 自己生活에 감탄했다.

“셋집”에 혹은 “관갓집”에 살아도 번번히 미장원에 드나 들고, 유행따라 비싼 옷만 입는 텅 빈 생활과는 根本적으로 다르다.

農村女人들은 地方마다 옷매가 조금씩 다르지만 都市의 女人들은 몸에 제이는 부라우스에 여섯마 길이 형질을 이리 저리 주름잡아 칭칭감는 싸리(Saree)를 입는다. 어떤 사람은 印度의 女性이 世界的일 것이라 하는데 참 그럴듯한 의미가 있다. 曲線美가 풍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다가 유유하고 거만한듯한 풍취와 자세가 그 나라의 옛 황금시대를 그려보게 한다.

부嬌을 하는 나라이므로 나이 스물이면 적어도 서넛아이의 어머니 노릇을 한다. 스물다섯에 어린애 아홉을 낳았다는 女人도 만났다. 每日 아침 늘어만가는 22,000 名의 새로운 입(口)들을 飢餓하려고 政府는 가족

계획사업에 발벗고 나섰으나 그것이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國民의 大部分이 힌두教를 가솔에 깊이 뿌리박고 있으며 그밖엔 回教와 2%의 기독교人이다. 350 種의 神을 가졌다는 힌두教人은 肉食은 절대 하지 않으므로 食堂의 요리사는 모두 回教徒이다.

이렇게 어려운 現實에서도 오로지 그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하여 1953년 정부는 Bhere committee를 通해서 全國적으로 Health Survey를 하였고 그 결과

- ① 보건사업은 Integrate pattern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마련할 것.
- ② 보건사업기관은 모두 UNIFORM한 Pattern 일 것.
- ③ 전국에 5,000 個 보건소를 설치할 것.
- ④ 보건간호원의 數를 多量增加할 것.
- ⑤ 모든 보건분야의 사업은 한데 뭉쳐 협조해야 한다. 카는 표어를 내 걸고 철저한 보건사업의 기초를 세워 research, training, education, service의 順序로 그야말로 숨가쁜 줄다름을 해오고 있다.

英國式 교육에 젖은 그들의 사고방식은 理論과 實習이 물샷틈 없이 組織的이며, 어찌도 숙제가 많은지 미처 한눈 팔 겨를도 없이 들볶였다. 全校生을 모두 섞어서 team을 단

물고 Field work 이나 seminar 를 할때는 항상 team 이 한데 모여 연구 게 되고 누구나 제가꿈(의사, 간호 원, 영양사, engineer 등등) 자기 분 야의 일만 맡되 서로 협조하지 않 으면 일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만들 어져 있었다. 틀에 짜인 여러가지 Research programme 이나 pilot project 는 참 좋은 工夫가 되었으며 오로지 後進國에서만 얻을 수 있는 唯一한 경험이었고 산 工夫였다. 이 런 경우와 우리나라를 比較하면 우리 는 주어진 自然의 혜택이 너무도 크 기에 그들의 努力의 半分으로도 남부럽지 않는 保健向上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나는 自信한다.

지금도 가꿈 지난 1年을 회상해 본다. 氣溫 43°C, 濕度 90°, 우리가

살기엔 너무도 어려운 땅을 뛰지고 Hongkong 니 에 내티 지옥에서 天國으로 온 기분이었고, 다시 우연히 만난 “비틀즈” 一行과 함께 Manila 를 향하였다.

며칠후 대만에 와서 훌륭하게 띄 어 있다는 J.C.R.R. (Joint Commission on Rural Reconstruction Programme)을 보고 한참 부러운 마음으로 고국 에 돌아온지 어언 2個月 이 더 지났다. 검으턱턱한 내 피부에 서는 아직도 “인도”의 냄새가 남다 고 친구들은 놀려댄다.

끝으로 배움의 길을 베풀어 주신 기관당국과 여러선배님들, 특별히 UNICEF 의 Mr. McBain, W. H. O. 의 Dr. Tsai, Miss Gelina 의 따뜻한 후원에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내과 간 호 학

이 한편의 책이 내과 간호의
.....
전문간호원을 만들 수 있음니
.....
다.
...

값 < 일반가 700원
학생과 490원

강 재 위
김 재 미
손 대 관 > 편역

반양장 · 경지 · 四六배판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발행